

장소

장소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는 ‘공간’이 있다. 장소는 일반적으로 공간보다 작은 범주로 보며, 인간 행위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가 많다. 장소는 ‘어떤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곳’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나 사물이 있는 공간은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 장소로, 의미를 갖는다.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면 장소가 되는 것이다. 즉, 장소는 사람의 인식으로 구별되는 한정적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김혜진, 「초등 지리 교육에서 재현된 ‘장소감’ 내용 분석」

에그뉴(Agnew, 1987)가 제시한 다양한 장소 개념

위치로서의 장소	지표상의 특정한 지점
감정 이입 대상으로서의 장소 (장소감)	개인이나 집단이 한 장소에 대해 주관적인 감정(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괄)을 가질 때의 바로 그 장소
생활 공간으로서의 장소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관계가 펼쳐지는 장

— 전종한, 서민철, 장의선, 박승규, 『인문지리학의 시선』

장소와 지역

지리학은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간은 시간의 상대적인 말로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지표상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공간 개념은 위치, 장소, 지역, 관계, 이동 등의 요소로 지표상에 구체화된다. 따라서 지리학은 이들 요소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는다. 위치란 공간 속에 분포하는 지리적 요소들을 구체화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위치는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준다.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리 요소를 장소라고 한다. 지구 상에는 무수한 장소가 존재하며, 그중 하나도 같은 곳은 없다. 이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다.

그러나 장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접한 장소와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존재이면서도 인접 장소들과는 필연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유기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장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개

념의 지리적 특성이 나타날 때 이를 지역이라고 한다. 지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점을 갖는 공간으로서 같거나 유사한 지역이 지구의 곳곳에 존재한다. 장소가 점(點)적인 특징을 갖는다면 지역은 면(面)적인 특징을 갖는다. 지표상에서는 끊임없이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과 통신, 공기와 물의 순환, 문화의 확산 등이 좋은 예이다.

— 권동희, 『지리 이야기』

장소성과 장소감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장소성과 장소감은 중요한 부분이다. 장소성은 물리적·환경적 요소, 인적·사회적 요소, 정서적·상징적 요소와의 상호 작용이 반복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에 대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장소성은 오랫동안 사람과 장소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장소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장소성은 그 장소의 특징, 정체성, 이미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집단적 인식의 표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 정체성·지역 문화 등을 다루는 지리 영역, 장소 마케팅, 도시 계획이나 건축 분야 등에서 장소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비해 장소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크다. 샤마이(Shamai)는 장소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행동을 장소감이라 하였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장소감이 장소 애착, 정체성, 지역 의식 등 장소와 관련된 여러 특성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한다. 학자마다 이견이 있기는 하나 장소감은 주로 개인적이며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장소는 사람의 활동으로 드러나는 곳이며, 이에 따라 장소성과 장소감이 파생된다. 최병두는 개인이 느끼는 장소에 대한 감정을 장소감으로, 집단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의식 차원으로 승화된 것을 장소성으로 구분하였다.

— 김혜진, 「초등 지리 교육에서 재현된 ‘장소감’ 내용 분석」

장소감

어린이들은 자신의 생활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 공간과 상호 작용하며 장소에 대한 느낌, 감정, 생각인 장소감을 형성한다.

장소감(Sense of Place)은 특정한 주변 상황과 맥락에 대한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으로서 물리적 소환경에 대하여 한 개인

이 보이는 반응 패턴이다. 장소감은 인간이 특정 환경에 묶이도록 만드는 감정적이며 경험적인 흔적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장소감을 살펴보면 장소가 어린이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의미의 세계인 일상 공간과의 총체적 만남을 통하여 장소를 학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경험, 사유, 감정 등을 형성하며 장소를 실제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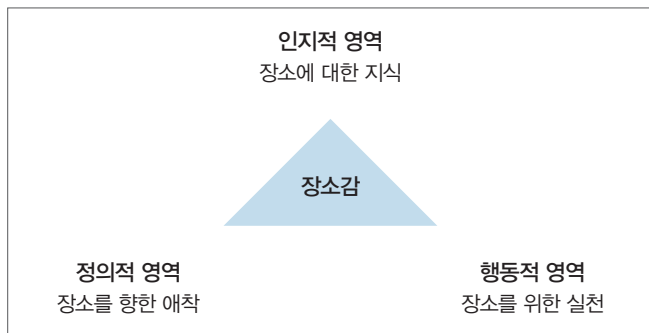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를 만들고, 장소를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재창조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장소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과 같은 장소감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장소감은 어린이들의 자아가 특정 장소에 뿌리내리게 하여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어린이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들의 일상 공간에는 생동감 넘치는 어린이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초등 지리 교육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박명화·남상준, 「일상 공간에서의 어린이의 장소감」

장소감의 하위 영역

장소감에 관한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장소감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인지, 감정, 행동이 합쳐진 통합 체계로 논의된다. 장소감은 특정 장소에 관한 인지적, 정의적, 체계적 이해라고 보거나 장소감의 심리적 차원이 인지, 애정,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장소감에 관한 이러한 개념화는 기존 장소감 연구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장소감을 구성하는 지식, 감정, 행동 요소가 어떻게 장소로 통합되어 가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장소감의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장소감의 하위 영역

이들 요소는 각각 장소감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개인이 장소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지

식을 가지고 있는지, 장소에 대해 얼마나 애정과 일체감을 가지는지, 얼마나 장소를 위해 행동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지를 보이는지와 관련된다.

- 김민성·윤옥경, 「장소감 측정 도구의 개발과 적용」

학교 공간에 대한 어린이의 장소감

학교 공간은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표적인 일상 공간이며, 또래 집단과 교사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교라는 동일한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감정과 행동들이 공간을 채우고, 의미 있는 장소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의 의미는 어린이들에게 다시 영향을 주며, 장소와 어린이들은 상호 작용한다.

어린이에게 교실은 지루한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공간을 자유롭게 채워 나가고 싶어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어린이들의 자유와 마찰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쉬는 시간 동안 교실이라는 공간을 자유로 채워 나간다. 하지만 동시에 교실은 행복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우리'라는 소속감 속에서 어린이들은 선생님, 친구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느낀다.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는 장소에 대한 느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린이들에게 형성된 장소감은 지리적 자아로서 어린이들의 삶과 관련된다. 장소에 대한 감정은 외부의 가치와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어린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가치와 기준을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다.

- 김일두·남상준, 「학교 공간에 대한 어린이의 장소감」

어린이 사적 지리의 중요성

초등학교의 지리 교과에서 어린이들이 배우는 내용과 사용하는 용어들은 어른들이 결정하였으며, 이는 공적 지리의 관점에서 결정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어린이의 사적 지리는 존중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최근 어린이의 장소감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어린이의 사적 지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네라는 표현은 어린이의 사적 지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어린이가 평소에 자주 다니는 범위, 자주 이용하는 장소, 추억이 남겨져 있는 특별한 곳 등이 있는 동네는 어린이가 개인적으로 겪은 지리적 경험에 의해 완성되는 사적 지리의 영역이다. 또한 같은

장소에 대해 서로 같거나 다른 장소 경험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적 지리의 영역을 수업 상황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영위하는 공간 또는 장소에 대한 지리적 경험을 사적 지리의 관점에서 가치 있게 분석하여 어린이 지리 교육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의 지리 경험에 대한 연구가 어린이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서일교·남상준,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동네’의 공간적 범위와 모습」

III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등하굣길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장소이며 다양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며 소속감과 애착이 형성되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곳을 거쳐 오므로 등하굣길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오가는 길에서 하는 경험은 서로 다르다. 어린이들의 이동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 상호 작용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지리적 활동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동하면서 사람들은 청각, 후각, 촉각, 시각, 미각과 같은 신체의 감각 작용을 통해 일차적으로 세계를 경험한다. 직접적인 경험을 하며 다양한 감각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지리적인 경험은 더욱 풍성해지고,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 김정아, 「어린이의 일상적 여정의 지리 교육적 의미」

III 심상지도와 그림지도

심상지도와 그림지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양병일·김준혁(2018)은 심상지도가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기 위해서는 외현화·현재화가 필요하며, 그림지도는 심상지도의 현재화를 위한 가장 흔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들은 심상지도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언어의 측면에서도 표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문이 추가된 그림지도를 활용하여 더욱 풍부하고 정보 손실이 덜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였다. 한편, 심상지도는 응답자들이 직접 그리는지, 응답자가 제공해 준 정보를 분석하여 지도로 그려지는지에 따라 직접적 심상지도(Direct Mental Map)와 간접적 심상지도(Indirect Mental Map)로 구분할 수 있다.

- 최재영·유수진, 「지리 교육에서 심상지도(Mental Map)의 활용」

III 그림지도 읽기와 그리기

지도 그리기는 백지를 주고 그려 보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와 주요 건물만 표시한 그림지도를 주고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3학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머릿속에 저장된 공간 인지 도식을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펼쳐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지도 읽기와 지도 그리기는 차례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두 가지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도 읽기는 도입 당시에는 흥미 유발을 위해 학생들이 잘 아는 건물들을 중심으로 그 위치적 특징을 살피지만, 본격적으로 지도 읽기를 할 때는 점적인 건물보다는 선적인 길을 먼저 이해하고, 점차 점적인 건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은 모든 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길과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길을 중심으로 다룬다. 건물 역시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들과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와 같이 읽기와 그리기 과정을 반복하며 마을의 공간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한다. 지도 읽기에서부터 기호에 관한 인식을 하도록 한다. 즉, 지도를 보면서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학교는 학교끼리, 병원은 병원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기호에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도록 한다.

- 송언근, 「지리 하기와 지리 교육」

III 지도 그리기 수업 결과의 활용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때 지도 그리기의 결과물은 피드백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개별 학습으로 진행할 경우 결과물에서 학생의 이해도와 장소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림지도를 그리는 진행 상황을 통해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모둠 학습으로 진행할 경우, 특히 학생들이 주고받는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교사가 관여하여 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 성향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만약 모둠에서 활동을 주도하는 학생이 두드러져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 평가만 가능하고 학습 내용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순서대로 돌아가며 그림지도를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 최재영, 유수진 「지리 교육에서 심상지도(Mental Map)의 활용」

☞ 장소에 대한 생각과 관심 나누기 활동 자료

장소와 자신의 경험이 상호 작용하고,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연계되면서 장소감이 형성된다. 따라서 자신과 친구가 주변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한 작품을 보면서 장소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비교할 때 다음 활동 자료를 활용하면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공통으로 그린 장소 이야기하기: 자신과 친구가 그린 우리 주변의 여러 장소 중 공통으로 그린 장소에서 겪은 서로의 경험, 그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적어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나의 경험 _____ _____	친구의 경험 _____ _____
나와 친구가 공통으로 그린 장소 _____	
나의 생각과 느낌 _____ _____	친구의 생각과 느낌 _____ _____

- ② 친구만 그린 장소 이야기하기: 자신과 친구가 그린 장소 중 친구만 그린 장소에서 겪은 서로의 경험, 그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적어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나의 경험 _____ _____	친구의 경험 _____ _____
친구만 그린 장소 _____	
나의 생각과 느낌 _____ _____	친구의 생각과 느낌 _____ _____

☞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생각과 느낌 비교하기

• 전시장 관람 기법을 활용한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

이 기법은 전시장에 가면 전시 해설사가 방문객에게 여러 작품을 설명하듯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이 그린 주변 여

러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한 작품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학생들은 순서대로 옮겨 다니면서 다른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하며,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

• 교실 산책 기법을 활용한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

교실 산책 기법은 전시장 관람 기법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전시장 관람 기법은 설명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교실 산책 기법은 설명하는 학생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기법은 주로 글쓰기 작품이나 미술 작품, 협동 작품 등을 전시하고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법이다.

우선 학급 구성원 각자가 표현한 주변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한 작품을 교실 곳곳에 전시한다. 그리고 각 작품 옆에 방명록이나 노트 등을 놓아두고 감상평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효과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

— 이상우, 『살아 있는 협동 학습』

☞ 온라인 의견 공유 게시판을 활용하여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생각과 관심 나누기

온라인 의견 공유 게시판을 활용하여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의견 공유 게시판도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 주변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한 작품을 촬영하여 온라인 의견 공유 게시판에 올린 뒤, 자신이 어떤 점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를 간단하게 적도록 한다. 학급 구성원들이 서로의 작품을 보고 느낀 점과 궁금한 점 등을 댓글로 남기며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 의견 공유 게시판을 활용한다면 한정된 수업 시간의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쑥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댓글을 남길 때는 통신 예절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댓글을 남길 때 과도한 줄임말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온라인에서도 올바른 언어 습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